

Saemmul Christian Academy

SMCA 2024 봄여름 소식지
샘물이야기 vol.16



목차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3)

[인터뷰] 2024 샘물배움공동체의 새로운 리더십 (4)

샘물,배움과영성연구소 양석현 소장님 (5)

은혜샘물초등학교 윤정선 교장선생님 (10)

샘물중고등학교 김문정 교장선생님 (15)

학생들의 생각 나눔 (22)

샘물중고등학교 10학년,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12기 홍아진 (23)

은혜샘물초등학교 5학년,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5학년 김하선 (26)

7학년 진서의 2024 봄여름학기 (28)

10학년 희중이의 2024 봄여름학기 (31)

학부모의 마음 나눔 : 샘물의 든든한 힘은 학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33)

공동체 소식 (50)

국토순례과 거름후원 (51)

은혜샘물유치원, SMCA 주간유치원 (53)

[후원소식] 김명제 장학기금 출연에 감사드립니다 (54)

#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2024 샘물배움공동체의 새로운 리더십

(편집자주)

2024년 샘물배움공동체는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의 임기를 마친 은혜샘물초등학교 유경재 교장선생님과 샘물중고등학교 양석현 교장선생님의 뒤를 이어, 2024년 은혜샘물초등학교에는 윤정선 교장선생님이, 샘물중고등학교에는 김문정 교장선생님이 취임했습니다. 두 분 모두 교사로 샘물배움공동체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지만 올해 시작은 많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2024년 새로 문을 연 샘물,배움과영성연구소 양석현 소장님 등 샘물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났습니다.

샘물,배움과영성연구소 양석현 소장님



작년까지 샘물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샘물,배움과영성연구소 소장님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학교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 샘물인상이 교육전반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하면 개발하고 바뀌어나가면서 이것들이 교육현장에 잘 구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교사 교육과 학부모 교육 지원 등이 연구소의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와 함께 샘물 배움의 열매들을 e북 등의 형태로 누적하고 외부에 공개해 상호 배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서출판과, 기대연(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

맹), 기학연(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경대연(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등 기독교대안 학교 운동단체와 협력해 정부의 대안학교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개 학교를 아우르는 샘물배움공동체 차원의 연구소는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욱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샘물중고등학교는 예전에 연구소가 있었지만 이렇게 샘물배움공동체 내 세 개 학교를 아우르는 연구소는 처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이 교사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잘 구현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잘 정리해 만들었는데 앞으로 은혜샘물초등학교까지 이것이 확대되어 초등-중고등 연계성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 2-3년 내 이루고 싶은 제일 큰 숙제입니다.

“샘물중고등학교는 예전에 연구소가 있었지만 이렇게 샘물배움공동체 내 세 개 학교를 아우르는 연구소는 처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이 교사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잘 구현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샘물에 처음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선생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무엇이 되든 교사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대학 시절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 교사가 되라고, 그래서 너 같이 선생님 때문에 힘들고 상처 입은 학생들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여곡절과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제 나이 서른 살에 2급 교원자격증을 땀는데 그 때가 내 인생 가장 기뻐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선생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무엇이 되든 교사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대학 시절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기도하던 중에...

미션스쿨인 영신여고에서 꿈꾸었던 기독교사의 길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전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원도 했었고요. 그러다 2014년, 11학년 첫 담임을 맡으며 샘물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반 첫 제자가 빅샘(임현욱 선생님, 2기 졸업생)이었어요. 당시에 빅샘은 영어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샘물에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동료 교사로 함께 하고 있으니 참 신기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학부모님 이시기도 했고, 교장선생님을 거쳐 지금은 연구소 소장님으로 샘물과 함께 하고 계시지요. 조금씩 다른 자리를 통해 경험하게 된 선생님의 샘물은 어떤 곳인가요?

샘물은 저에게 통합적인 기독교사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와 같아요. 미션스쿨에서 교사를 시작했지만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리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샘물에서 비로소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니었으면 제가 일반 성도

로서도 매일 복상을 했을까 장담을 못하겠어요. 샘물은 복상을 통한 신앙 훈련, 기독교사 리더십 훈련 등 미숙한 저를 훈련시켜준 고마운 곳입니다.

저는 우리학교를 떠올리면 다른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제가 학부모교실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학교가 겉으로 보기에 교사, 학생들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학부모님들의 기도가 샘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학교가 73 가정으로 시작해 이렇게 5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성장하기까지 쉽

“저는 우리학교를 떠올리면 다른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제가 학부모교실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학교가 겉으로 보기에 교사, 학생들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학부모님들의 기도가 샘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지 않은 길이었는데요. 훌륭한 리더들의 힘도 있었지만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기독교교육 시키겠다고 헌신하고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셨기에, 매일 매일 기도하고 협력해주시는 학부모님들 덕분에 샘물이 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는 연구소의 모습, 그리고 샘물의 모습을 그려주신다면요.

연구소가 점점 성장해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이런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해요’, ‘이런 연구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들 때 일년 동안 와서 마음껏 연구하

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WCA(Westminster Christian Academy)에 많은 것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다른 기독교학교에 흘러 보내는, 그래서 연구소를 주축으로 우리 학교의 장점과 교육적 성과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연, 경대연 등 활동을 하며 여러 기독교대안학교를 보면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문제 없는조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샘물은 교사부터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학교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하며 하나되는 스피릿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충분히 잘 하고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께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은혜샘물초등학교 윤정선 교장선생님



올해 새롭게 교장선생님으로 자리하셨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임의 자리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일상의 변화가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7시 40분에 주양 어린이 도서관으로 올라갑니다. 일찍 등교한 친구들 중 운동장에서 놀고 싶은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놀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오는데요. 거기서 끝말잇기도 하고 리딩레이스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학생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요즘 아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생생하게 듣습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일 텐데요.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며 때로는 제가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게 되어 사각지대가 없어져 좋은 것 같아요. 새로 온 신입교사 선생님들과 일대일 멘토링도 자주 하면서 묵상 나눔도 하고 현장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참 좋고요. 저 또한 양석현 샘물,배움과 영성연구소 소장님과 격주에 한번 만나 멘토링을 받는데 지난 6년 간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양석현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일 텐데요.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며 때로는 제가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게 되어 사각지대가 없어져 좋은 것 같아요. 새로 온 신입교사 선생님들과 일대일 멘토링도 자주 하면서 묵상 나눔도 하고 현장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참 좋고요.

샘물에 처음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4년 6월, 샘물중고등학교 예비중등 담임 교사로 샘물에 함께 했어요.

큰 애가 일반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예비중등 교사 모집 공고를 보고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교육학을 전공한 이후 육아로 일을 잠시 내려놓았던 터라 기도하며 서류를 준비하고 시범수업을 준비하던 기억이 나요. 당시 시범수업 주제가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첫 차시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교육학 전공자이고 학창 시절 국어를 별로 좋아

하지도 않아 처음에는 난감했었는데 준비하면서 신기하게도 수업 전체를 이끌어 갈 성경적 세계관 관점이 잡히고 수업 설계가 이루어져 저조차도 놀랐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큰 아이의 기독교학교 입학에 기도하다 제가 기독교학교 교사가 되었고 이어 큰애와 둘째 아이도 샘물에서 기독교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 교사, 은혜샘물초등학교 교사, 게다가 초등학교 졸업생 학부모이자 중고등학교 현재 학부모 등 다양한 자리에 계신데요. 그러면서 경험하게 된 선생님의 샘물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경험한 샘물은 정말 가정과 학교가 연합하는 곳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때로 생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공동체 안에서 학교의 미션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며 기다리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 편안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만, 옆에서 힘뭉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학부모들이 있고 아이들

이 흔들릴 때 기도하며 잡아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가정과 학교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를 위해 학교와 선생님이 잘 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저 기도하겠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 ‘내 아이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학부모님들의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 정말 감동이 돼요.

특히나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참 고맙고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자녀와 관련해서 사건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때로는 학교에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실 법도 한데 ‘우리 아이를 위해 학교와 선생님이 잘 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저 기도하겠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 ‘내 아이는 부

족하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 정말 감동이 돼요.

무엇보다 기도가 살아 있는 곳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는 눈물과 역사의 자리입니다. 때론 저도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내시고 끝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모이기에 힘쓰며 또 모여서 하는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 소망하는 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 영적 리더에 대해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결국 기도하는 리더인 것 같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올해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일반 국정교과서 교육과정보다 콘텐츠가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선 기존 것을 덜어내고 선택과 집중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는 교육과정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삶에 의미가 되고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는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깊이 배우고 그것이 삶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초등 시기는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 땅을 고르고 마음을 가꾸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 위에 뭔가를 해내는 능력보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고 도전하는 힘과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일반 국정교과서 교육과정보다 콘텐츠가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선 기존 것을 덜어내고 선택과 집중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

샘물중고등학교 김문정 교장선생님

(편집자주) 2024년 5월31일 발간된 학생 신문 샘보(샘물학보). 학생들이 기획하고 쓰고 만든 샘보 이번 호에 김문정 교장선생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샘보 학생기자가 만난 김문정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신습니다.

“My Lord, I need you!”

“샘물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점점 느껴가요.”

샘물은 매주 금요일예배의 마무리로 다 함께 구호를 외친다. 구호는 학생들을 향한 교장의 바람과, 개인의 인생, 철학을 담고 있다. 올해 새롭게 생긴 구호.“My lord, I need you!”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 구호의 주인공 라크샘이 교장으로 부임하신 지 어느덧 6개월을 향해가는 지금, 샘보는 지난 4월 18일 라크 김문정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샘보 이주원 기자



교장 선생님께서 부임 후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수업을 많이 할 때는 23시수까지도 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수업에서 만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장이 되고 나서 수업이 4시수 정도로 줄었어요. 교장 업무와 병행하기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수업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아요. 외부연수도 많고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 분주해요. 하지만 배우는 것도 많고 새로운 경험이에요.

올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세요. 샘지기, 풀뿌리, 중고등 친구들과 샘물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들에 생각치 못한 재미가 있어요. 나 혼자 못하는 것들을 함께 이뤄가게 하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12학년들과 함께하는 복상과 기도회는 꼭 참여하려고 하고요. 7

학년, 11학년 선생님들과 교장실에서 만나는 것도 늘 의미 있어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 많아요. (졸업생 학습지원, 6학년 국토순례 참여 등)

“ 저는 대학에서 10년을 강의했어요. 전공 강의도 하고 대학원생 강의도 많이 했죠. 그러던 중 34살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전까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저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어떤 계기로 샘물에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대학에서 10년을 강의했어요. 전공 강의도 하고 대학원생 강의도 많이 했죠. 그러던

중 34살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전까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저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제가 아들하

고 딸이 있어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저절로 주셨어요. 그래서 2004년 1월, 남편이랑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로 보내야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미국으로 회사가 발령이 나,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 후 미국에서 8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진리인가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8년동안 ‘하나님이 진리이다’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게 2013년 8월이에요. 그 후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과거와는 다른 나의 가치관과 내가 경험했던 수학 공부를 연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고 아니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3년 12월 샘물 교사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9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오셨거든요. 폴샘, 하꿈샘, 사랑샘. 이런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이 선생님들과 지금까지 함께하게 된 거죠. 저는 가르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물에서 그게 행복했어요. 수학을 가르치는 것.

교직 생활 중 샘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6기에 전지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야망이 아주 많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

가 컴퓨터공학과를 갔거든요. 그런데 가을 컨퍼런스 학과 설명회에 와서, 선생님들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샘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다

“ 이 학생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이 제자를 통해 샘물의 교사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느꼈던거 같아요.

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 대학가서 알았다고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며 컴퓨터 공학과에서 교회에 관련된 사업체로 나갔다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에게 불만이 있었고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만 바라보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짜릿했어요. 이 친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이 친구를 통해 샘물의 교사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느꼈던 거 같아요.

“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뒤에서 안고 계시고 내 손목을 잡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걸 인생에서 많이 겪었거든요.

구호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God is good all the time’은 계속해서 폴샘이 같이 외쳐주셨지요. 사람은 바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흐트러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결국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

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뒤에서 안고 계시고 내 손목을 잡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걸 인생에서 많이 겪었거든요.

그 다음 ‘My Lord I need you’는 샘물 안에 기도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만든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수업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그걸 기도하면 알려주시더라고요. 한번도 예외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걸 친구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

게든 도움을 주세요. ‘I need you’ 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Lord’는 올해 제가 하나님을 믿고부터 딱 20년 되는 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I need you와 Thank you Lord 두 가지 말할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대박난 하나님의 백성”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 속사람이 바뀌어 가고있어요. 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지? 나는 누구의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뭘까?’이렇게 고민하면서부터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틀어진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는거예요. 원래 같으면 얼굴을 돌리는 사이인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놀라고 피했죠.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것이 승리구나 싶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구나,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가 무엇인지 경험했어요.

그 하나의 사건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 같고 그게 제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부활의 증인은 삶이 변화되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렇게 됐어요. 저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꿈꾸시는 샘물의 모습은 어떤가요?

샘물인들이 이곳, 샘물배움공동체에 와서 어려움을 만나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샘물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꿈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모두가 평화의 띠로 연결되어 가는 것.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사람들뿐 아니라 밖에 사람들도 칭찬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나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거나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힘든 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나의 변화와 이뤄진 꿈을 경험하길 바라요. 모두가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 고백하는 샘물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 샘물인들이 이곳, 샘물배움공동체에 와서 어려움을 만나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샘물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꿈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모두가 평화의 띠로 연결되어 가는 것.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사람들뿐 아니라 밖에 사람들도 칭찬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나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공부 꿀팁을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해요. 정직하게 자신의 실력을 말하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선생님도 같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이래저래 생각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오더라구요.

두번째는, 선생님께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세요. “이거를 했더니 너무 잘됐어요. 이거는 좀 잘 안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질문해야해요. 저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세번째는 조금해 하지 마세요.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해야하는 것을 성실히 해내고 다음 계획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다보면 그게 쌓여서 결국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공부만 잘하는 건 없는 거 같아요. 공부하다보면 정말 영성과 실력이 같이 자라요.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친구들에게도 자기 배움을 주면서 인성까지 같이 크는 것. 이게 제가 샘물에서 본 샘물인들의 모습이에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샘보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속된다면 샘물인들에게 1년을 되돌아볼 매체가 되어줄 거 같아요. 우리의 사명과 핵심가치들을 사람들이 되새기며 저의 꿈을 이뤄가는 것에 분명한 역할을 할거예요. 샘물의 자랑인 샘보를 축복하고, 샘보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요. 샘보는 샘물의 자랑이에요”라며 샘보에게 응원과 축복의 말을 전했다.

샘보 이주원 기자

#

샘물배움공동체
학생들의 생각 나눔

모든 면에서 상상 이상이었던 네팔 비전트립

제이머시 — 안녕하세요 11학년 홍아진입니다.

비록 짧았던 일주일의 섬김이지만, 비전트립을 통해 얻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네팔 비전트립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안 그래도 학업적으로 채움이 필요한 시기에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투자를 해야 한다니. 선생님들께서 국내, 일본, 네팔 중에 선택하라고 하셨을 때 네팔은 진짜 죽어도 안 간다 했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느새 네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 없다고 생색내던 저는 국내도 일본도 아닌 기간이 가장 긴 네팔 비전트립에 가게 됩니다.

네팔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찬물로 소리 지르면서 씻어야 했고요, 물 한 번 잘못 마셨다가는 규민이와 도윤이처럼 하



루 종일 화장실에 앉아있어야 했고, 와이파이가 안 터져 일주일 미디어 금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달쌤은 지금 주어진 것들에도 감사해라. 네팔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기 쉽지 않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직 어른이 아닌지라 감사보다는 불평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생각했는데... 있었습니다.

수라차나 아이들은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얼마나 예쁜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도 눈이 반짝였고, 부족한 저희를 매번 웃는 얼굴로 기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제 삶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갈증을 호소할까? 생각했습니다. 제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간구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전트립에서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은 제가 구하는 것들을 이미 저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건 저였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감사를 배웠고, 제가 불평하던 일상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현지 교회에 방문했는데요. 현지 교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었습니다. 교실보다 작은 방 크기, 다 해진 방석들, 카혼과 기타만으로 드리는 찬양까지. 그곳에는 저희 또래의 네팔친구들이 있었고 영국인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작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드리는데 오른쪽에서는 주현이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왼쪽에서는 영어 찬양 소리가, 뒤에서는 네팔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났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냥 가슴이 엄청 뜨겁고 먹먹했습니다.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좁은 방에, 생김새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벅찼던 것 같습니다. 소박하더라도

저의 예배가 누군가의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예수제자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팔에서의 경험은 제 삶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게을러지려다가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허비하고 있는지 알기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전트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제이머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라는 네팔어입니다. 작은 저희를 들어 쓰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이머시! 감사합니다.

#

학생들의 생각 나눔 2.

5학년,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5학년, 김하선)

제목: 드디어 1박 2일

글쓴이: 5학년 샘물반 4번 김하선

오늘은 일주일 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1박 2일 체험을 하러 가는 날이다. 친구들과 나는 버스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출발했다. 우리는 버스에서 1박 2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다. 나는 오늘 별을 관찰 하러 간다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되었다.

우리는 먼저 뮤지엄 산에 가서 여러가지 작품들을 구경하고 숙소에서 체크인 을 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자게 되다니 기대가 되었다'. 우리는 방정리를 마치고 산속으로 가서 산책을 했다.우리는 걷고 또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들을 감상했다. 멋진 나무들과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은 정말 아름다웠다. 거기다 새들의 재잘 거리는 소리는 참 근사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천문대로 가서 별을 관찰 하러 갔다. 우리는 거기서 처녀 별자리, 목동 별자리 등을 배우고 밖으로 나가서 집적 보기도 했다. 게다가 달을 직접 천



체망원경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했다. 나는 우주에 있는 별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 게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참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대단한 장인이시다.

‘오늘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이 기억난다. 참 바쁘고 피곤했던 하루였다. 오늘 하루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가지 걸작품들을 보았는데 앞으로 더 하나님의 작품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겠다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하루가 궁굼해진다.

1박 2일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하다. 다음에 친구들과 갈 여행이 벌써 기대되고 벌써 이렇게 1박 2일이 끝나서 아쉽다. 나중에 또 다시 여행 갈때는 친구를 더 아끼고 소중히 대해 줄거다. 이상 기행문 쓰기를 마치겠다.

끝.



#

학생들의 생각 나눔 3.

(편집자주)

2024년 여름방학예배. 봄여름학기를 보낸 소감을 발표해준
7학년, 10학년 두 학생의 고백을 전합니다.

7학년 진서의 2024 봄여름학기

밝았습니다 저는 7사랑 전진서입니다.

저는 샘물에 신입생으로 생활하며 여러가지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감사했던 일들과 샘물에 적응하며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고난주간 마지막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갈 때에는 원래와 똑같은 예배겠지 하면서 빨리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찬양 '내가 예수를 못박았습니다'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너무나 실감나고 믿어서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다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서로 서로에게 손을 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쇠골이 다친 친구에게도 모두 손을 올려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와 살아간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 일반학교를 다녔을 때 언제나 주님을

숨겼습니다. 친구들이 일요일에 놀자 하면 일이 있어 안된다 했고 주님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난주간을 계기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고, 이 사실을 너무나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주님과 한층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수학 과제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수학선생님께서 80문항 정도의 문제를 해주셨습니다. 수학을 잘하기는 커녕 좋아하지도 않았고, 6학년 까지만 하더라도 이정도로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로 써는 사실상 불가능할거란 생각이 컸고 풀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총 80문제 풀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딴 길로 새기도 하고 수학문제가 너무 많아 짜증도 났지만 다시 원래 길로 되돌아오려 애를 썼고 그렇게 계속 고군분투 한 결과, 결국 80문제를 모두 풀어 당당하게 숙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제가 맺음 공부를 할 때 더욱 더 도움이 되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음악 시간에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컵타 프로젝트로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조를 짜는데 여자친구 한 명에 장난기 많은 남자친구 셋이 조로 편성됐습니다. 그 장난기 많은 친구들 중 저도 포함되었고요. 그 친구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저희가 너무 장난 치는 바람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노력하지 않았던 저희의 모습을 보고 속상해 했고 저 뿐만 아니라 같이 장난 쳤던 친구들 모두 미안해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사과하고 그 친구가 용서해주었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부터 짐이 되는 친구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간증을 준비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멋지게, 간증문을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써도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겪은 그대로 쓰라고 하셔서 더욱더 진심을 다해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조차도 제겐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엿한 샘물인이 되어 7학년 2학기를 앞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샘물이란 선물에 더욱 감사하며, 그 샘물을 더욱 누리는 7사랑 전진서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10학년 희중이의 2024 봄여름학기

올해 10학년 편입생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봄여름학기의 감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홈스쿨링을 한터라 올해 고등학교가 저의 첫 학교생활이 되었습니다. 항상 혼자서 공부하고, 계획을 짜며 자신에게 맞춰서 생활하던 저였기에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한다는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축구를 하면서 친구들과 빨리 친해졌고 또 좋은 선생님들의 수업 덕분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샘피언스리그나 뽀샘과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학교생활은 저를 더욱 기쁘고 생기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학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적응”이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적응을 왜이렇게 빨리 했냐” 라고 들 말하면서 심지어 제가 편입생인걸 까먹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엄청나게 내향적인데 아직도 안믿는 친구들

도 많기도 합니다. 제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선생님들의 도움과 선배들, 친구들의 배려덕분인 것 같습니다. 입학 하기도 전부터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주어서 빠르게 샘물이라는 공동체안에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코람데오라는 말을 샘물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 샘물공동체 안에서는 이 코람데오 정신이 정말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이 학기가 가면 갈수록 나타났습니다. 서로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제일 위해주는 관계가 샘물의 공동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국토순례나 목장모임, 모든 면에서 11학년 선배들이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학기였습니다. 이제 1학기가 지났지만 집짓기, 또 목장모임과같은 활동들로 리더의 역할을 준비해나가면서 벌써부터 13기가 지금 12기의 역할을 이어나갈때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학년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겨자씨같은 13기지만 하루하루 성장해나가는 모습이 결국 공중에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로 자라나는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샘물배움공동체
학부모의 마음 나눔

샘물의 든든한 힘은 학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편집자주)

샘물은 기도공동체입니다. 특히나 학부모님들의 기도 연합은 샘물배움공동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만난 신임 리더십 선생님들도 샘물의 힘은 바로 학부모님들의 기도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도 은혜샘물초등학교도 학부모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학교에 모여 진행되는 요일별 기도회, 토요일 혹은 월요일 밤 진행되는 아버지 기도회, 낮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비대면 저녁 기도회 등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샘물 학부모님들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학기마다 전체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전체 기도회, 학년별 기도회, 학급 기도회도 있지요.

요일별 기도회를 통해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학부모님들의 짧은 글을 모았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 기도회

아버지 기도팀장_12기 박명석 부, 박준범

샘물배움공동체와 나의 자녀와 가정,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격주이긴 하나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로서 주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 주 앞에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



월요 오전 기도팀장_13기 박예찬 모, 이현정

|| 나만의 고민일 거라 씨름하고 있던 것이 다른 이들의 기도제목으로 나누어질 때...

나만의 고민일 거라 씨름하고 있던 것이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지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될 때 샘물 공동체는 한뜻, 한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중보의 힘은 커지고 기도의 끈은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니

다. 기도회가 거듭될수록 공동체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기독 학부모로 세워져가는 시간이 됩니다.

월요 저녁중 기도팀장_12기 박주현 모, 김은정

퇴근 후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날, 책임감으로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문을 읽는데 울컥한 은혜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작은 순종으로 얻는 회복과 감사의 은혜가 큼니다.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화요 오전 기도팀장_12기 최이세 모, 강경미

|| 기도회를 통해 반드시 만나지게 하신 이유가 있으심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함이 참 기쁘이고 큰 은혜임을 잘 알지만, 기도회를 향한 발걸음에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시간에 정성을 모으고 겹겹이 쌓여지는 눈물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마음을 내

어놓게 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도 열심이 심어지게 하는 기도의 깊고 넓은 지경의 확장과 중보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저 만나지게 되어서 기도하는 줄로 생각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회는 반드시 만나지게 하신 이유가 있으심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디달 단 하나의 용기의 발걸음만 준비하면 됩니다. 2학기에도 만나지게 하심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요 오전 기도팀장_ 12기 노하린 모, 최문영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에 나아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시간인거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안에 서로의 마음의 손길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며 나아 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좋은 공동체라는 타인의 시선에서,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슈가 아닌 기도제목이 되어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 가는 것이며,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회의 세겹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지키시며 일하십니다.

||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회의 세겹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지키시며 일하십니다.

수요 저녁중 기도팀장_ 12기 이주원 14기 이시우 모, 최현미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책임감으로 어렵게 자리를 지킨 어떤 수요일밤, 주님께 드릴것은 연약한 육신과 가난한 마음과 눈물 뿐인데..주님은 그것들을 받으셔서 자녀와 가정, 공동체를 향한,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어렴풋

||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책임감으로 어렵게 자리를 지킨 어떤 수요일밤, 주님께 드릴 것은 연약한 육신과 가난한 마음과 눈물 뿐인데.. 주님은 그것들을 받으셔서

이 알게 하십니다. 수요기도팀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면, 눈앞의 내 문제에만 빠져있고 지쳐서 기도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수요기도팀과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이웃과 공동체에 역사하시길 간구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가 다시금 선명해졌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목요 기도팀장_12기 장유빈 모, 정진형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의 힘은 공동체가 잘 되어감의 의미도 있지만, 기도할 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심이 은혜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도 큰 응답을 해주심을 경험합니다. 중보기도는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기대와 소망으로 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도 큰 응답을 해주심을 경험합니다.

금요 기도팀장_14기 전하연, 16기 전진서 모, 정혜영

모든 것이 가능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학교를 품고 기도 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엄마인 우리들을 품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몫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서로의 기도제목을 끌어 안고 눈물 흘린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서는 엄마들에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셨습니다. 네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도응답은 덤으로 누렸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답입니다.!

서로의 기도제목을 끌어 안고 눈물 흘린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서는 엄마들에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셨습니다.

기도문팀장님_12기임세은, 14기임소은, 16기임승주 모, 양미영

우리 부모가 먼저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기도문’ 섬김을 제안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람(자녀)을 키우면서 사람(저를)이 되게 하셨고, 고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하셔서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문 섬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성과 다음세대를 세우라’

는 사명과 일치해서 주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상반기에 하나님은 자녀, 교사, 학부모 공동체 안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엡 4:3). 앞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으면 합니다(느 2:4). 이를 위해 우리 부모가 먼저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부장_12기 김도윤 16기 김시윤 모, 김미선

샘물배움공동체와 교사, 자녀, 가정과 영혼들을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할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을 더욱 깊이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기도의 응답이며 감사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일들을 말씀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2학기에도 기도로 연합되는 은혜의 자리에 샘물의 학부모님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 함께 모여 기도할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기도의 응답이며 감사입니다. 2학기에도 기도로 연합되는 은혜의 자리에 샘물의 학부모님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 요일별 기도회 일정

- 어머니 요일중보기도 대면 (월~금) 오전10시 샘사랑학부모실201호
- 비대면 줌 (월,수) 저녁9시
- 아버지기도회 (토요일/학기마다 일정 확인)



은혜샘물초등학교 기도회

중보기도팀 팀장 7복음 이수하 / 5은혜 림하 모, 김미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꿈꾸며 세워진 샘물배움공동체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선배학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 다음세대를 향한 눈물의 기도로 현재의 우리들은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음세대로 흘려보내고자 지금도 기도의 마음과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은샘초는 6번의 요일기도회로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알아가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할수록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공동체에 주신 비전과 사명, 핵심가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공동체위에 운행하시길 소망하며,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팀 총무 5샘물 설하음 모, 서득현

작년 봄부터 시작된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은샘사랑 학부모 중보기도팀의 기도로 감사하게 1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직하자마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중보기도팀의 화요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요기도회를 통해 학교와 선생님, 자녀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긴급히 중보해야 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화요기도회때 느낀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뜨거워 이 은혜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이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를 계기로 섬기는 교회

에 성경통독모임이 생겨 2기까지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샘사랑 학부 모요일기도회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성경통독 모임으로까지 이어지는 축복과 회복의 통로로 사용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월요 아버지 기도지기 7진리 이주하 / 2은혜 주언 부, 이대성

2018년 첫째 아이를 은샘초에 보내면서 아빠인 저는 그저 매 학기 수업료를 책임지는 역할이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학부모기도회 참석을 권유받았고 처음 기도회를 참석하고 난 후 저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그냥 은샘에 보내는 것과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은샘에 보내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공동체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키워나가는 것을 느끼며 특별히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길을 혼자가 아닌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음에 큰 은혜와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 부모인 저를 성장시켜 주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월요 아버지 기도지기 2샘물 기서울 부, 기은택

2023년, 아이가 은샘초에 입학하고 학교에서 기독 학부모로서 해야 할 과제 중 하나처럼 보였던 ‘요일별 학부모 기도’를 작년엔 목요일에 신청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배점표에서 점수가 그리 높지 않아 ‘좀 편하게 참여해야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와 다르게 작년에는 아버지 모임이 아닌 요일 기도회였습니다. 우연인지 아버지 몇 분으로 이루어진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어쩌다 어머니 학부모가 들어 오셨다가 약간 화들짝 놀라 나가신 일도 기억이 납니다. 학기 초, 첫 모임 저녁 8시 아버지들이 기도지기과 부기도지기를 번갈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그 시간에 아버지들은 모였습니다. 각자의 신을 벗고

퇴근 후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그 시간에 아버지들은 모였습니다. 각자의 신을 벗고 말씀과 찬양, 중보로 주님 앞에 나와 지친 육신의 한계를 넘어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말씀과 찬양, 중보로 주님 앞에 나와 지친 육신의 한계를 넘어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님들의 진심이 있는 나눔과 기도는 그들만의 어수룩함, 연민과 동감이 있습니다. 각자의 세상살이에서 지고 온 짐을 서로 나누려는 듯 땀 흘림이 있고 가정과 학교, 자신의 일터의 기도들을 한땀 한땀 엮어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동력을 얻는 기도 모임은 부족한 제가 24년 기도 지기로 동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요일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 동역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월요 아버지 기도지기 7복음 이수하 / 5은혜 림하 부, 이무량

학부모기도회는 저에게 기독학부모로서 그리고 샘물배움공동체의 일원으로 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숙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의 방법으로 키우고자, 하나님께 맡긴 저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시어 다른 생각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샘물배움공동체의 귀함과 우리 귀하신 선생님들의 헌신을 보게 하시고, 공동체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른 가정들의 기쁨과 슬픔, 힘듦을 알게 하시고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샘물배움공동체 안에서 주신 비전대로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저가게 하십니다. 학부모기도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화요오전 비대면 기도지기 5샘물 유로하 3은혜 하라 모, 오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 나도 남을 이롭게 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주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나눔이 큰 도전이고 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샘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어머니들을 만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화요대면 기도지기 7복음 박지온 / 3샘물 해온 모, 박소현

아이를 기독교세계관으로 키우고자 기독교대안학교를 선택했지만 정작 기독교교육으로 교육받지 못한 저의 신앙과 육아의 괴리감으로 어려움에 있던 중 학부모기도회를 만나고 기독교학부모라는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함께 모여 나의 가정뿐 아니라 학교, 교회, 나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 양육과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때마다 염려보다는 함께 기도하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중보기도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해주신 선물입니다.**

화요일간 기도지기 5샘물 김하선 / 2은혜 하은 모, 함영혜

나에게 요일 기도회란 나라와 학교와 그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러 갔으나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화요일간 기도지기, 기도문 작성지기 5샘물 임희성 모, 송영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기도회를 통해 샘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자녀가 되고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내가 그 부모가 되고 내가 샘물인이 되어 샘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주시고 빛어가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화요일간 기도지기 6은혜 김지훈 / 3샘물 지안 모, 황숙영

은샘초의 요일기도회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눈물범벅이 되어 있지만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따뜻함으로 가득히 와주셨음을 느낍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느끼고 진짜 하늘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시는 은샘 기도회의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간 기도지기 3샘물 이다함 / 1은혜 주함 모, 최혜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 동시에 깊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짐을 들고 나아가면 함께 들어주는 공동체로 인해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의 끈을 붙잡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간기도회 4은혜 손하엘 모, 이진나

"마태복음 11:28-30" 중보기도는 소가 멍에를 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이 들어 한마디의 기도도 못하고 있을 때 대신 멍에를 메고 짐을 들어주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강한 마음과 동시에 빛진 자의 마음이 떠올라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가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목요대면 기도지기, 기도문 작성지기 8복음 변은유 / 6샘물 화평 / 3샘물 하람 모, 최환희

매주 기도회로 모임이며 우리가 기독학부모로 부름 받았고, 부름 받은 자리에서 지켜야 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금요대면 기도지기 6샘물 김태윤 / 4샘물 태양 모, 최윤경

은샘초의 요일기도회는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독 학부모로서 어떻게 학교와 가정과 자녀를 바라봐야 하는지 기도를 통해 알게 되고 또 그런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절대 혼자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문 작성지기 8복음 박연수 / 2은혜 현수 모, 이효영

나에게 기도회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샘물배움공동체가 다른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의 기도의 끈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이끌어나가고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남은 학기도 요



일기도회에서 함께 해요.

기도문 작성지기 2샘물 기서울 모, 위혜정

나에게 학부모 기도회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기독 학부모로서 성장해 가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게 옆을 지키는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의 성숙한 신앙도 배우고, 힘들 때 일으켜 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영적 연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삼겹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자리, 요일 기도회에 더 많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 요일별 기도회 일정

월요일 야간 8시 - 아버지기도회(비대면 줌, 한 달에 한번 학부모실 대면기도회)

화요일 오전 11시 - 비대면기도회

화요일 오후 1시 - 대면기도회(학부모실, F동 202호)

화요일 야간 8시 - 어머니기도회(비대면 줌)

목요일 오후 1시 - 대면기도회(학부모실)

금요일 오후 1시 - 대면기도회(학부모실)

각 반 기도지기, 반부지기 혹은 중보팀(010 2188 2605)에게 연락주시면 원하시는 기도회 단독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나오셔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마시고, 한 학기 혹은 일년에 한번이라도 꼭 나오셔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샘물배움공동체
공동체 소식**

마음으로 함께 걷는 국토순례 거름후원 아프리카 잠비아 학교에 책상과 의자 등 후원

매년 봄 걷는 국토순례길. 한 걸음 한 걸음 학생들은 이 땅을 걷고, 마음으로 함께 걷고자 하는 분들은 거름후원으로 순례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국토순례 기간 동안 매년 풀뿌리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거름후원이 진행되는데요. 2022년과 2023년은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 전달했었지요. 올해는 먼 나라 학생들을 돕기 위한 샘물배움공동체 해외 사역의 첫 시작을 국토순례 거름후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국토순례 거름후원은 샘물의 자매학교인 WCA(Westminster Christian Academy, 미국 세인트루이스)와 오랜 기간 함께 하고 있는 NGO 단체이자,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잠비아에서 2003년부터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African Vision of Hope와 함께해 100명의 학생들에게 책상과 의자를 선물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용돈을 아껴 후원함에 넣는 동전 후원과 부모님의 집안일을 도와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식 등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400만원. 여기에 힘을 보태주신 후원자님들 덕분에 1,300여 만원의 모금액이 채워져 목표한대로 100개의 책상과 의자를 잠비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 23명의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했던 African Vision of Hope의 학교는 현재 잠비아 전역 6개의 캠퍼스에서 5,2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고자 하는 잠비아 학생들의 열망을 학교 시설이 따라잡지 못해, 학교 밖에는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샘물의 후원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길 바라며 샘물을 넘어 아프리카에까지 다음세대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표달성 공약으로 내건 아이스버킷

동전후원함을 채우는 일을 독려하기 위해 학생들이 목표달성 공약으로 아이스버킷을 내걸었는데요. 국토순례 11학년 조장 뿐 아니라 학교 리더십의 아이스버킷까지 자기네들 맘대로 정했다고요 🤦‍♂️. 지난 6월 14일, 렛츠뛰샘을 마치고 후원에 감사하며 11학년 국토순례 조장들과 김문정 교장선생님, 양석현 배움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고영민 총괄이사님이 얼음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

SMCA 주간유치원 은혜샘물유치원의 유치원 생활

2023년 시작한 주간유치원이 40화를 맞았어요. 은혜샘물유치원은 유치원 어린이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격주에 한 번.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은혜샘물유치원 어린이들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김명제 장학기금 출연에 감사드립니다 故 김명제 님 가족분들의 유산 기증을 통해

**故 김명제 님 가족, 샘물배움공동체에 유산 기증
약 7억 원 상당, 김명제 장학기금 출연**

2024년 5월, 샘물의 오랜 후원자 故 김명제 님과 김동례 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샘물배움공동체에 약 7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 ‘김명제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故 김명제 님과 아내되시는 김동례 님은 샘물중고등학교가 세워진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며 매년 한 명의 학생은 꼭 공부시키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샘물의 오랜 후원자님이십니다. 학창시절 교회 목사님께 받은 장학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아내 김동례 님의 마음으로 시작해, 부부는 지난 40 여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찾아 장학금을 나누었습니다.

2023년 11월, 부군 김명제 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후, 김동례 권사님은 남편분과 함께 일군 평화시장 상가 6개 점포를 지난 5월 샘물배움공동체에 기부하셨습니다. 유산은 지난 40 여 년 두 분의 땀과 노고가 담겨 있는 곳이자 자녀들을 키우고 얼굴도 모르는 많은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생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진심이었던 아내의 마음을 아는 남편은 학교에 유산 기증의 뜻을 밝히셨고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뜻에 흔쾌히 동의했기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2024년 7월 21일(주일) 오후 4시 '김명제 장학기금' 후원 감사모임

2024년 7월 21일(주일), 故 김명제 님의 가족분들을 모시고 '김명제 장학기금' 후원감사모임이 있었습니다. 후원감사모임에는 김동례 권사님과 두 분의 아들 내외분, 그리고 4명의 손녀 손자들이 모두 귀한 시간을 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님을 맡으신, 지금은 한동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계시는 박은조 목사님 내외분, 샘물배움공동체 이사장님 윤만선 목사님 내외분, 고영민 총괄이사님, 그리고 샘물배움과영성연구소 양석현 소장님, 샘물중고등학교 교장 김문정 선생님, 은혜샘물초등학교 교장 윤정선 선생님 등 샘물 리더십들이 함께 했습니다.



샘물배움공동체 윤만선 이사장님은 가족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두 분 덕분에 누군가가 공부를 이어갔고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할 것”이라며 “기증해 주신 유산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독교 교육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책임감 있게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故 김명제 님의 아내, 김동례 권사님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며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나눔을 배웠고 또 장학금을 받

아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기에 나도 주께 받은 것을 나누고 싶었다”며 “김명제 장학기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앞장서길,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씨앗이 뿌리내려 백배 천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샘물배움공동체는 ‘김명제 장학기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가족분들께는 1년에 한번, 기금 사용 내역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세대 기독교교육을 위해 함께 해 주신 故 김명제 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 김명제 김동례 님 이야기 [바로가기](#)





#

섬기는 예수제자
샘물배움공동체
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발행일 2024.08. **발행처** 샘물배움공동체 **발행인** 윤만선
1698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56 (상하동 506번지)
T. 031 714 7091 **F.** 031 8005 7093 **E.** public@smca.or.kr www.smca.or.kr